

## 기독교상담 방법론으로서 예수의 비유 고찰

안 경 승\*

### 국문초록

논문은 기독교상담에서 활용 가능한 언어적 개입의 도구가 개발될 필요성을 제안하고, 구체적 방법 중의 하나로 예수의 비유를 생각해 본다. 우선 기독교상담과 관련한 예수 비유의 성격과 비유 해석의 흐름을 살핀다. 그리고 비유 중에서 은유에 초점을 두어 현대학자들의 은유연구와 상담에서의 은유 활용의 실례를 찾아본다. 은유는 수사학적 기법으로만이 아니고 인간의 사고와 경험을 담아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것이 상담적 개입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다음은 예수의 비유와 현대은유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세 가지 요소를 구분하고 기독교상담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첫째, 비유는 인지적 통찰을 불러일으킨다. 비유와 은유는 인간 인지의 구성과 변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독교상담에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과 뜻이 내담자의 삶과 생각에 통찰로 작용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비유는 생각 그 이면의 갈망으로 인해 습관으로 굳어진 내면을 탐색하고 그 틀을 깨는데 유용하다. 비유는 죄의 속성과 연결된 습고 저항하는 갈망의 분별과 변화에 도움을 준다. 셋째, 예수의 언어적 비유가 그의 인격과 삶으로 표현되었듯이 기독교상담자는 비유를 만들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전 과정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태도와 삶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주제어:** 예수, 비유, 은유, 인지적 통찰, 기독교상담

• 논문 투고일: 2019년 3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9년 5월 2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5월 3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

이 논문은 2019년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I. 여는 글

일반심리학과 상담기법이 기독교 세계에 소개된 이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이론 중의 하나가 인간중심이론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수용이 갖고 있는 가치가 기독교의 인간관계의 원리와 부합하는 면이 있다. 또한 교회나 공동체 내의 선부른 지적이나 일방적 가르침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은 기독교 돌봄 문화 내에 조금 더 유연하고 공감 중심의 소통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긍정적 기여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위축된 부분은 기독교상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언어적 개입을 통해 내담자의 회복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현대 기독교상담의 전체적인 구조를 검토해볼 때, 탐색과 라포가 필요로 하는 초기 단계 이외에 인간중심이론의 상담기법을 종결의 단계까지 끌고 가지는 않는다. 대부분 통찰과 실행을 위한 다양한 치료적 기술과 함께 신앙적 자원이 일부 활용되고 있지만, 기독교 상담자의 언어적 개입과 관련해서는 정교화된 대안이 요구된다.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뛰어난 능력 중의 하나인 언어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영향을 주고받아 왔다. 전통적으로 설교와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달하는 핵심 통로였다. 기독교상담에서도 개념과 전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어떤 과정과 도구를 가지고 전달하고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의 개발을 위해서 예수의 비유를 적용하려고 한다. 예수는 인간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만나는 대상의 유익을 위해 최적의 개입을 할 수 있었던 상담자였다. 그런 예수가 공생애 기간 동안 대화와 관련하여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것이 비유이다. 이 예수의 비유가 그 형식과 전달하려는 내용에서 현대 기독교상담의 언어적 소통에 기여하는 상

담적 자원을 가졌다고 본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첫째, 예수 비유의 특징을 살피고 상담적 적용이 가능한 중요 요소를 구분한다. 둘째, 예수 비유의 내용 중에서 은유적 성격의 이해를 위해 현대 은유 연구의 흐름과 함께 상담에서의 은유활용의 실례를 찾아본다. 셋째, 예수 비유가 기독교상담 내의 언어 표현과 개입에 있어 적용 가능한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한다.

## II. 펴는 글

### 1. 예수의 비유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표현 방식 중의 하나가 비유이다. 사람들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비유로 일상적 대화를 풀어간다. 매일의 대화에서 비유를 평균 1분에 6번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하루에 약 천 번, 일생을 통해서는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세월을 50년으로 계산할 때, 천오백만 번 이상 비유를 담은 표현을 사용한다(김옥동, 1998). 또한 대화만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오는 글과 말 역시 대부분 비유이고, 예술 영역(영화,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등)은 비유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통로가 되고 있다. 더구나 비유가 단지 말의 특성이 아니고 언어를 통한 사고와 행위가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인간의 일상과 삶에 깊게 파고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재조명되고 있다(Lakoff & Johnson, 2006).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탐색, 평가, 그리고 실행의 모든 과정에 언어를 통한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담의 만남에서도 비유는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과 더 나아가 활용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내담자의 일상적인 경험과 전반적인 삶이 비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유를 통해 이해, 생각, 감정, 말, 그리고 행동을 표현한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를 돕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전달하고 풀어내는데 있어 효율적인 의사표현 수단인 비유를 고민하게 된다. 예수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회복과 성숙의 대화를 위한 모델과 원리를 제공한다.

### 1) 예수 비유의 성격

구체적인 상황이나 예기치 않은 현장에서 예수는 인간의 말과 함과 함께 청중들에게 익숙한 물체와 사건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인간의 표현법도 채용하였다(정훈택, 2009). 예수께서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활용한 전략적 표현기법은 그림언어이자 구상적 표현인 비유이다. 비유(parable)는 신약성경의 그림언어에 대한 헬라어 표현(παράβολή)으로 어원 상 비교(comparison) 혹은 유사(analogy)를 의미한다. 이는 “...과 같다”의 뜻을 가진 동사로부터 유래한 히브리어 마샬(mashal)을 번역하는데 있어서 70인 역(the Septuagint)의 편집자들에 의해 채택된 헬라어 단어이다(이한수, 1989; Jeremias, 1974; Kissinger, 1987).<sup>1)</sup>

구약에서는 주로 지혜문서인 잠언(격언; meshalim) 말씀이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의 비유는 이러한 문서들에서 발견되는 성격과는 다른 차원의 내용과 문학적 장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Kissinger, 1987). 현대 수사학으로 보면 주로 은유(metaphor) 또는 직

1) 마샬(mashal)은 구약에서 비교를 통해 어떤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법으로, 쓰여진 용례로 볼 때 속담(삼상 10:12, 24:12; 겔 16:44), 잠언(잠 1:1),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심오한 가르침(욥 27:1, 29:1), 우화적인 특성을 지닌 것(겔 17:2-3, 24:3-4), 비밀한 말씀이나 불가사의한 수수께끼 같은 말씀(시 49:4, 78:2; 잠 1:6; 겔 17:2), 조롱 섞인 노래(미 2:4; 합 2:6)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그 외에도 풍자 또는 야유, 이야기 비유, 알레고리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유(simile)의 방법으로 비유의 목적과 내용을 구상적(figurative) 형태로 새롭고 독창적으로 그려주고 있다. 구체적인 형태는 단순한 비교형식(마 11:16, 13:44, 47, 25:14; 막 4:26; 눅 12:58), 사실에 대한 간단한 경구형식(마 5:13-15, 6:22-24, 7:9-10, 17-20; 막 2:17, 21-22; 눅 4:23)과 어떤 생각을 예증하려는 이야기 형식(눅 10:30-37, 12:16-21, 16:19-31, 18:1-8, 10-14, 13:6-9, 14:16-24, 16:1-8, 19:12-27)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수 비유의 목적과 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성격을 정리한다. 이 부분은 비유를 활용한 예수 상담의 모형을 추론해 보고 이것을 기독교상담에 적용해 보고자 할 때, 본래 성경이 의도한 중심이 되는 내용과 접근을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첫째, 지상의 이야기와 방식을 사용하여 천상의 의미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청중들에게 익숙한 인간의 삶, 물체와 사건을 비유하며 비유는 도출된다. 1세기 농경 사회의 세계, 마을과 작은 도시, 귀족과 농민, 농경, 지주와 소작인, 씨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 어부들, 목자와 노동자들의 세계가 그 재료들이다(Reinstorf & van Aarde, 2002). 이런 이유로 예수가 전달한 비유는 쉽게 전달되고 오래 간직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그 분이 비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주된 내용은 자신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둘째, 예수는 비유를 통해 듣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 현실, 변화를 직면하도록 설명, 변호, 방어, 공격과 도전을 시도한다. 소금(마 5:13) 눈 속의 티(마 7:3-5), 포도주와 포도주 부대(마 9:16, 17), 아이들(마 18:1-4), 포도나무와 가지(요 15:10) 그리고 떡과 물(요 6:35, 7:37-39)을 활용해서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한다. 또한 예수는 자신의 이름(인자, 주, 말씀, 구원의 문, 길, 돋는 해, 빛, 모퉁이 돌, 선한, 목자, 산 떡 등)이나 행동 자체의 은유(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요 13:5-11)를

통해 언어만이 아니고 행동과 삶으로 개입한다(Boghosian, 1983).

기독교상담에의 적용과 관련하여 예수 비유는 언어적 표현 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면서, 비유의 상담적 효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더불어 상담의 대화에서 비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예수의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당대만이 아니고 현재의 청중에게도 유용하듯, 기독교상담 현장에서 나뉘지는 비유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담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상담 과정 속에서 내담자가 말하기 원하고 상담자가 개입하고자 하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펼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 의도, 방향을 나누고 도전하고 통찰하며 변화에로 이끄는 것이 핵심 목적이 되어야 한다.

## 2) 예수 비유의 해석

예수의 비유가 가진 회복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추론해 본다. 교부 시대에서 거의 19세기 말까지 비유는 주로 풍유적으로 해석됐다. 이후 비유를 확대 직유로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일반적인 윤리적 교훈을 찾는 것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그 다음 시대의 연구자들의 관심사는 비유가 구현된 실제 상황, 즉 예수의 생애와 종말론적 구원의 도래라는 현장에서 비유를 이해하려는 것이다(Jeremias, 1974; Kissinger, 1987).

현대 비유연구에서 특별히 상담적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예수의 비유를 문학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 은유(metaphors)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의 비유는 관념적, 신학적, 윤리적 차원의 메시지를 줄 뿐 아니라, 문학적 상징체계를 형성한다. 이것은 마치 어떤 위대한 미술 작품이나 음악 작품이 역사적 상황을 넘어서서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이 비유를 듣는 현대의 청중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게 한다. 특히 비유의 은유적 언어의 본질과 기능이 연구되면서, 비유가 지금의 독자를 참여자로 만들어 내면을 살펴보게 하는 통찰로 이끄는 영향력이 있음을 부각한다. 즉 다른 사람이 본 것도 보게 하지만 자기 방식으로 보게 하고 그것을 다른 상황과 미래를 위해 적용하도록 하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Funk, 1966).

둘째는 실존주의적 접근으로 비유의 실존적 교훈에 집중한다. 비유는 듣고 읽는 사람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결단하도록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에도 새롭고 거룩한 설득력을 가진다(Kissinger, 1987: vii). 문학적이고 실존적인 해석의 공통점은 듣는 사람을 참여자로 만드는 비유 언어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이야기의 내적인 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독교상담에서 비유를 통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갖게 되는 회복적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 비유형태 자체의 치료적 역할에 대한 타당성을 보게 한다.

John D. Crossan(1973: 240) 같은 경우 은유 형태의 비유는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계의 실체를 청자에게 경험하게 한다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간의 경험이다. 그는 밭에 감추인 보화(마 13:44), 좋은 진주(마 13:45), 그리고 큰 물고기(도마복음 81:28-82)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유이해를 위한 세 가지 범주를 소개한다. 도래(advent), 반전(reversal), 그리고 행동(action)이다. 예를 들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예수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한다. 우선 천국은 마치 보화의 출현(도래)와 같아서 새로운 세계와 상상하지 못할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기존의 계획하고 꿈꾸던 현실이 무가치해질 뿐 아니라 아낌없이 포기 하는 반전을 이룬다. 이 도래와 반전의 결과로 현재와 미래를 안내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전에는 생각하거나 계획하기 어

려운 새로운 삶과 행동을 펼치게 된다. 목회상담학자인 Donald Capps (1981: 203-205)는 Crossan의 세 가지 비유범주를 상담에 적용한다. 도래(advert) 비유는 내담자로 하여금 전적으로 새로운 체험, 발견, 놀라움, 신비어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반전(reversal) 비유는 내담자의 굳어지고 고착된 삶의 틀과 패턴을 벗고, 새로운 것을 향해 마음을 열수 있도록 다가가고, 활동(action) 비유는 내담자가 단호한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확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도전한다.

## 2. 비유와 은유

현대 언어학은 비유(figure)가 환유, 제유, 풍유, 대유, 반어, 의인화, 역설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예수 비유(parables)는 주로 은유, 직유, 예화, 그리고 풍유 등으로 구분되는데(이한수, 1989), 그 중에서도 예수 비유의 현재적 적용에 근거를 제공하는데 은유의 성격에 집중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비유연구자들 역시 예수 비유가 가진 모호하고 암시적 성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은유로 이해해야 한다고 평가한다(이한수, 1989). C. H. Dodd(1961: 5)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비유의 은유적 성격을 강조한다. “가장 간략하게 말해서 비유는 그 선명함 또는 모호함으로 청자의 주의를 끌고 활동적 생각 속에 그것을 개입시키고 그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 충분한 의심을 마음에 남기는 자연 또는 일상의 삶에서 도출된 은유 또는 직유이다.” Dieter Reinstorf와 Andries van Aarde는 C. H. Dodd의 비유 정의에 근거해서 예수의 비유가 전반적으로 은유적 성격을 가졌음을 논증하는 연구를 시도하기도 했다(Reinstorf & van Aarde, 2002). 반면에 일반 언어학 분야에서 은유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치료적 효용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상담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예수 비유의 상담과의 연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은유는 비유언어(figurative language)의 일환으로 학술문헌에서 18.6%, 소설에서 11.8%, 대화에서 7.7% 활용된다(Steen et al., 2010). 은유는 한 대상이나 개념을 다른 종류의 대상이나 개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과 결부시킴으로써 익숙하지 않은 것에 친숙성을 부여하고 그 아이디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양유성, 2003; 송재홍, 2014). 은유의 구조는 두 영역으로 목표영역과 공급영역이 있다. 목표영역은 은유로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공급영역은 목표영역과 연관된 구체적 주제이다. 은유의 표현이 이 두 영역을 결합하면서 목표영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달된다(Wagener, 2017). 예를 들어 “침대는 과학입니다”라는 문장에서 침대는 목표영역이고 과학은 공급영역이다. 침대라는 가구에 과학이라는 학문적 개념을 연결하여 과학이 갖고 있는 객관성, 정밀성, 신뢰성, 인체공학 등의 속성이 목표영역인 침대에 전이되고 신뢰도를 높하려고 의도한다.

### 1) 은유와 상담

이런 은유가 일반 상담과정의 변화 자원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있다. 첫째, 은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서 유용성이 확대되었다. 전통적으로 은유에 대한 인식은 효율적으로 언어를 구사하거나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수사학적 장치 혹은 문학적 표현 방법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말 부터 은유적 표현이 단지 수단이라 경험에 근거한 사고의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언어는 그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가 정신적 구조나 능력의 반영체이다. 이미지를 그려주는 그림언어인 은유 역시 인간 의식의 내용과 사고의 추론과 방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배선윤, 박찬부, 2007; 명법, 2016). 즉 은유는 단지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인식과 사고 세계로 진출하는 통로를 제공한다. 초창기 연구에서는 이것을 도관(conduit metaphor)은유라고 표현했고(Reddy, 1979), 이후에는 은유는 언제나 은유적 개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적 은유론으로 체계화한다(Lakoff & Johnson, 2006). 언어적 표현으로 은유가 가능한 것은 인간의 개념체계 안에 은유가 존재하고 인간의 사고 과정 대부분이 은유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은유는 분명 경험되고 이해되었지만 내면 내지 상상의 차원에서 존재하던 사고를 언어로 구조화하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생각과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양유성, 2013).

둘째, 은유가 상징의 언어적 도구라는 점이다. 상징은 그리스어 심벌론(symbolon)이 어원이고 “함께 연결시키다(to put together)”를 의미한다. 하나의 인식표를 둘로 잘라 두었는데, 반쪽을 각각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짝을 맞춰 형제임을 알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Luc Benoist, 2006). 상징의 기원과 의미에 대한 연구에서 Miranda B. Mitford와 Phillip Wilkinson(2010: 6-7)은 이렇게 말한다. 상징이란 “시각적 이미지 또는 어떤 생각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고대부터 상징은 우주, 풍요, 죽음, 재생과 관련된 영역이었다. 그러던 것이 정신분석이론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개념과 사물들이 정신세계와 심리적 욕구의 측면에서 고찰되기 시작했다.”

특히 분석심리학은 인간 내면의 연구를 하면서 무의식의 활성화가 이뤄지는 일종의 통로가 상징이고 여기를 통해 정신 에너지의 변형이나 이동이 이뤄진다고 보았다(Hall & Nordby, 2004). 이것을 상담 자원으로 제한한 Milton Erickson은 상징 이미지를 표현하는 언어적 도구인 은유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은유가 에너지의 통로로 적어도 두 차원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Erickson & Rosen, 2015). 하나는 내

담자의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을 연결하여 대화를 하게 한다. 이것은 치유적 관점에서 볼 때, 변화를 원하는 마음과 변화를 원하지 않는 마음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며, 내면을 활성화하여 그 속에 있는 해결책과 연결되도록 돕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은유가 만들어지면서 내담자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과거, 일상, 알고 믿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주게 된다고 본다(이운주, 양정국, 2007).

은유의 또 다른 다리 역할은 인지와 정서를 연결 짓는 것이다. 은유는 이 두 세계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감정의 영역에서 사고를 촉진하고 사고의 영역에서 생생한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은유 사용이 실제로 정서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강렬한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유사용이 증가된다고 보고된다(Crawford, 2009; Fainsilber & Ortony, 1987). 이러한 활성화 과정을 통해 감정 패턴의 재구조화와 함께 정서적 경험을 인지적으로 구성한다. 또한 새로운 의미 창출과 행동의 변화를 촉발하게 된다(이운주, 양정국, 2007).

은유개념과 이해에 대한 전환과 함께 상담에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특히 이야기치료는 인문학적이고 언어학적인 이야기인 은유가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고 은유스토리텔링이라는 분야로도 발전하였다. 또한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와 그 중에서도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같은 경우 핵심요소의 의미 전달을 위해 은유를 활용한다(Stoddard & Afari, 2016). 가족치료 분야에서는 Virginia Satir가 내담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은유를 사용한다(Satir et al., 1991). 언어의 표현만이 아니고 표현예술활동(연극, 미술, 놀이, 동작 및 시 등) 역시 비언어적인 은유적인 활동을 통해 상담적 개입을 시도한다.

은유의 유용성에 관심을 갖고 상담현장에 도입한 상담자들은 은유적 소통이 주는 치유 효과에 대해서 내담자와의 관계 구축, 내담자의 정서

에 다가가고 상징화하는 것, 내담자의 암묵적 신념을 드러내고 도전하기, 내담자의 저항에 집중하기, 새로운 참조체제를 도입하기 등으로 정리한다(송재홍, 2014).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유는 첫째, 일상의 습관과 고착화된 자기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기호를 제공한다(이선형, 2012). 또한 심리적 문제가 개념문자가 아닌 상징언어로 표현되면서 부작용이나 저항이 줄어들고 양가감정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다루게 해 준다(양유성, 2013; Kopp, 1995). 만약 직접 다룬다면 강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어떤 감정도 은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이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내담자가 저항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다루면서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보다는 그 주제와 관련 있지만 다른 맥락의 은유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내담자는 이 둘을 스스로 연결 지으며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윤주와 양정국(2007: 154)은 다음의 예를 소개한다.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가진 내담자는 자상한 남성과의 결혼을 약속했지만 악몽을 자주 꾸는 문제로 상담을 오게 된다. 상담자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은유적으로 접근하였다. 상담자는 만약 남자 친구와 공원을 산책하라고 날개가 다친 새 한 마리를 발견한다면 둘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내담자는 자신만이 아니고 남자친구도 다친 새를 돌봐 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상담자는 자기가 보기에 내담자가 바로 날개를 다친 새로 보인다고 암시하였다. 내담자는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알았을 경우에도 자신에 연민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다.”

둘째, 이 기호를 활용하여 직관이나 외부 경험을 통해 내재화는 되었지만 드러내기 어려웠던 잠재적 자아와 의식하지 못했던 영역을 표현하게 된다(Fox, 2013). 달리 말하면 은유적인 의사소통은 언어 혹은 비언

어적 요소를 통합하는 작용을 하여(이윤주, 양정국, 2007), 경험과 이해의 범주를 확장하고 현재 삶에 새롭고 풍성한 의미를 전달한다. 새로운 의미 부여나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통찰로 작용하며 내담자 스스로의 인식과 행동 변화의 동기로 작용한다(Zeig & Munion, 1999).

## 2) 은유 활용의 현장

상담 과정에서 은유는 언어적 형태나 비언어적 형태로 활용되고 있고, 은유 내용 면에서는 내담자에게 발생하는 은유와 이에 반응하는 상담자와의 은유적 대화나 상담자가 준비한 은유가 발생한다(송재홍, 2014). 내담자에게서 발생하는 은유는 Clara E. Hill과 Karen M. O'Brian(2001)의 상담과정(탐색, 통찰, 실행)에서, 특히 내담자에 대한 탐색과 통찰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된다(Stewart & Barnes-Holmes, 2001; Gelo & Mergenthaler, 2012). 내담자에게 은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이와 연결된 감정을 포함하여 내담자의 표현에 대한 상담자의 질문과 반영을 통해 내담자의 통찰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Richard R. Kopp과 Michael J. Crow(1998)의 모델 같은 경우는 내담자와 상담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은유 내용의 변화를 그려보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며 상담을 심화시켜 나간다. P. A. Sims(2003)의 모델에서는 내담자에게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목표를 은유와 연결하도록 한다. 사건과 내담자에 따라 이야기를 만드는 주체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은유스토리텔링 모델 역시 전반적으로 내담자가 이야기한 은유를 활용하고 내담자 스스로가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은유스토리텔링은 이야기치료의 접근과 맥을 같이 하는데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은 억압 등으로 인해 일상에서 보지 못하지만 감춰져 있는 내면의 문제를 의식의 영역에서 은유 형태의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내면의 심상화가 이

뤄지고 이것이 내적 힘을 회복하고 인식과 삶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접근이다(최서영, 2016). 내담자가 스스로가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은 새로운 개념을 기존의 내담자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게도 하고 단절된 이야기를 완성하거나 내면의 힘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Dennis Tay(2012: 147)는 탐색과 통찰을 활성화하며 내담자에게서 발생한 은유로 대화하는 상담 개입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대응처리(correspondence processing)라는 것으로 은유 내의 상징들 간의 관계 파악, 상징의 중복적 의미 분석 그리고 내포된 의미의 전환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은유 의미에 대한 다양하고 확대된 이해를 하면서 어떤 인지적 결합이 이뤄졌는지를 보게 한다. 예를 들어 “사랑은 커피다”라고 했을 때, 대응처리로 반응한다고 하면 내담자에게 커피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내담자는 “커피는 여러 가지 맛이 있다,” “커피는 나를 깨워준다,” “커피는 매일 매일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와 같은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화를 이어 나가면서 사랑을 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거나, 사랑을 하며 살아있는 느낌을 가진다는 것, 사랑은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내담자의 지금 관계에 있어서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탐색과 통찰을 하게 한다.

두 번째는 포섭(class inclusion)으로 은유를 확대하기 보다는 핵심 개념의 특징을 더 부각하며 목표영역과 공급영역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것이다(Tay, 2012).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사랑은 커피다”라는 내담자의 은유에 대해 포섭질문을 한다는 것은 커피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묻는 것이다. 그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에는 커피의 쓴 맛을 포함해서 다양한 맛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거나,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두를 잘 갈아서 시간을 들여 커피를 내려야 한다, 커피는 포기할 수 없는 중독성이 있다는 등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사랑에 적용해서 사

량은 아프고 힘든 시간이 있다는 것, 사랑은 노력하며 지켜가야 한다는 것, 사랑은 쉽게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목표영역에 공급영역을 연결하는 개념이 더 깊고 넓게 소개되고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내담자가 은유로 구성된 간접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기대되는 변화는 첫째, 자신에 대한 발견을 돕는다. 자신의 대한 관찰을 하며 조금씩 스스로를 개방하고, 내면의 문제, 감정, 억압된 욕구를 찾게 된다. 둘째, 인지적인 통찰을 돕는다. 내면을 은유이야기로 풀어내면서 막혀있고 정체되고 숨겨졌던 마음을 보게 되고 이것이 인지적 통찰로 이어진다(최서영, 2016).

상담자로부터 발생하는 은유는 주로 실행을 위한 개입에서 활용된다. 상담자가 준비한 새로운 은유를 나누면서,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 행동, 감정을 인식하는 것과 새로운 의미와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돕게 된다(Millikin & Johnson, 2000; Tay, 2012). 은유를 풀어내는 것은 상담자에게 준비한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은유 실무서 지침서를 발간하여 상담자를 돕고 있는 ACT 모델이 하나의 실례가 된다(Stoddard & Afari, 2016). ACT에서는 그들이 설정한 상담의 여섯 가지 과정(수용, 인지적 탈융합, 현재-순간 자각, 맥락으로서의 자기, 가치, 전념 행동)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상담자로부터 발생한 은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Siegelman, 1990).

은유는 내담자로 하여금 ACT의 핵심 과정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좀 더 명료한 그림을 그리면 이해를 심화시켜 준다(Hayes, Strosahl, & Wilson, 1990). ACT의 개발자인 Steven Hayes는 인간 언어의 상당 부분이 은유적이라고 전제하며 추론 능력, 문제 해결, 상상력 등의 인지와 문화 발달의 가속기 역할을 하는 것이 은유라고 말한다(Stoddard & Afari, 2016: ix). 상담자가 임상에서 “바로 이 주목할 만한

능력”인 은유를 활용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한다. “좋은 심리치료사는 좋은 이야기꾼이다. 그들은 오래된 지식을 이용하여 내담자들을 진정으로 새로운 것에 개방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들은 정보를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체험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Stoddard & Afari, 2016: x).”

### 3. 예수 비유의 상담적 적용

기독교상담 분야에서 비유활용의 역사를 추적한 Capps(1981: 148-152)의 분석에 따르면, 초창기 연구는 Carroll Wise와 Wayne Oates 같은 목회상담학자가 주도했다. 이들은 비유 내의 도덕적 가르침을 찾아내서 제시하였다. 비유 해석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이런 접근에서 벗어나서 다른 적용을 실천현장에 제시한 학자는 James E. Dittes(1970)이다. 그는 비유가 비록 도덕적 교훈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삶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이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식의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유는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의도 한다 라기 보다는 삶에 대한 변혁적 조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예수의 비유 활용에 대한 근래의 주목할 만한 접근은 Joshua J. Knabb에 의해서 시도된다. 그는 ACT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은유를 예수의 삶과 비유와 대조하여 신앙에 근거한 ACT를 제안하고 기독교상담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 기독교상담에서 이야기치료와 관련하여 성경의 비유나 은유를 상담과정에 적용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양유성은 예수의 비유와 함께 바울의 메시지, 그리고 시편에서 구현된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은유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예증을 하고 있다(양유성, 2003; 양유성, 김동영, 홍순원, 2014). 이재화와 전요섭(2012)은 성경 이야기를 활용해서 기독교상



담을 진행할 때, 은유가 상담진행과 탐색의 수월성,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이야기 재구성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인식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대상과 주제에 따라서 더 확대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예수 비유의 성격과 은유의 치료적 효과에서 추론된 내용에 근거해서 기독교상담의 언어적 개입에 제안이 가능한 세 가지 영역을 찾아본다.

### 1) 인지적 통찰

기독교적 돌봄과 상담의 비유적 접근은 우회적이지만 인식의 재편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성경의 지혜 전통에서 볼 때, 예수의 비유는 하나님의 본래적 창조질서를 분명하게 할 뿐 아니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삶의 질서를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격려한다(Melchert, 2002). 이것은 그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자신과 세상을 보는 총체적 방식에 있어서 혁신적일 정도로 다른 측면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비전통적인 변화로 안내한다. 당시의 전통적 질서가 고질적인 죄성의 영향으로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무너져 있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관점을 스스로는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Borg, 1995). 예수는 비유를 사용해서 이러한 친숙해졌지만 문제 가득한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를 도전한다(Patterson, 1998). 도전과 반전을 담은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인식의 변화와 함께 새관점으로 자신들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L'Abate, Hewitt, & McMahan, 2007).

비유 해석의 연구 역시 이점을 드러내 준다. 비유는 도덕적 가르침의 재발견 보다는 통상적인 인지적 틀을 깨는데 주목적을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내포된 비유의 메시지가 듣는 이에

게 실제로 통찰될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재방향화 된다. Capps(2003: 170)는 “예수의 비유로 인한 근원적인 경험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급진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비유를 듣고 은유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인식이 재조직화 되는 일이 생긴다. Capps(2003: 171-180)는 인식이 어떻게 비유적 관점에서 변화되고 재조직화 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게슈탈트 치료로부터 원리들을 유추해서 제시한다(재조직화, 전경과 배경, 인식의 연속적 패턴 깨뜨리기).

은유 연구 역시 이런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은유는 인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교 자체가 언어와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인지활동 중의 하나이다. 두 가지 개체를 비교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별하는 인간의 인지 능력은 일종의 정신적 스캐닝(mental scanning)과 같은 것으로 이를 통해 일치(identity), 인식(recognition), 추상화(abstraction)의 인지작용이 일어난다(김종도, 2002: 47-48). 이종열(2003: 17)은 은유나 환유와 같은 다양한 비교를 통해 표현하는 방식을 Figure(한국어로는 비유)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비유는 그 인지체계와 개념화 방식이 복합적인 인지작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언어보다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혼성(blending)이란 개념을 가져온다(이종열, 2003: 19). 이는 비유의 과정에서 사상(mapping)과 투사(projection)라는 두 인지작용이 “녹아 섞이면서” 개념적 통합망(conceptual integration network: CIN)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사상작용은 비유 매개물 사이의 대응관계를 수립해 주는 것이다. 즉 비유하고자 하는 대상과 비유된 대상이 유사한 개념관계로 대응되는 개념적 차원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인지적인 단서로 제공된다. 더불어 비유를 통해 수립되는 대응관계를 매개로 새롭게 창조되는 의미는 또 다른 인지작용인 투사작용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비유와 은유에 대한 연구가 보여주듯 상담에서 비유는 내담자의 인지적 통찰로 작용한다. 은유가 자신의 상황과 삶을 보는 고착된 관점을 벗어나 새로운 분별과 인식, 또는 창의적 생각을 갖게 한다. 더 나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의미는 자신의 가야할 삶의 방향을 다르게 정향하고 그곳으로 행동하게 한다(양유성, 2003). 기독교상담자는 보지 못하고 본다 해도 왜곡하는 내담자가 자신과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하도록 돕는다.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인식의 재편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삶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다른 관점으로 통찰할 수 있게 했듯이, 기독교상담자의 비유적 개입 역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 2) 습관의 변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각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한계에 부딪칠 때가 있다. 사람들은 알지만 안 변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피조물일 뿐 아니라 습관의 피조물이다(Smith, 2018).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은 채로 작동하고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자동유도장치나 자동항법장치와 같다. 자동항법장치는 비행기가 운행하는데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인간 조종사의 개입이 없이 자동으로 조종되는 것이다. 달리 비유하자면 운전하는 것과 유사하다. 운전이 익숙해진 사람이 운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운전하지 않는다. 운전이 필요한 복잡한 행동이 수면 아래 차원에서 관리된다. 자동적 습관의 힘이 우리 뺏속에 새겨지고 삶의 방식이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Smith(2018: 61)는 적응 무의식(adaptive conscious)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행동을 규정하는 무의식적 또는 자동적 작용의 압도적 영향력을 분별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압도적 영향력은 인간이 추구하고 심지어 예배의 대상으로도 발전하는 갈망과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습관을 형성하고 지속하게 하는 것은 내면의 갈망이다. 무엇을 갈망하고 어떻게 갈망하느냐가 습관화된다. 이것에 대해서 분석심리학은 그림자라는 용어로 표현했고 그 그림자 욕구는 바로 건강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형성한다. 문제를 희석하려는 성향이고 인간 내면의 혼란스러운 욕구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내적 갈망의 중심에 무겁고 얽매이게 하는 죄가 있다고 설명한다(히 12:1).

내면의 갈망으로 인한 습관적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저항하고 표면적인 동의는 할지 모르지만 살아왔던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는 저항으로 반응한다. 기독교상담은 죄의 갈망과 그로 인한 습관을 확인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지, 정, 의의 모든 영역이 진리로 돌이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과 진리에 대한 수용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은 권면이나 대면 같은 직접적인 접근 대신에 간접적인 접근을 해야 할 대상과 시기를 아셨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마 19:16-22)라고 강하게 직면한다. 반면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동일한 질문을 하였을 때, 그 사람의 저항과 올바르지 못한 의도를 아시고 대화의 말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42)를 전달하신다. 이런 모든 경우가 그들을 돌이키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는 생각과 삶에서 변화를 저항하는 이들에게 비유라는 비지시적인 접근을 통해 감춰지거나 숨겨진 면을 드러내고 진리를 알게 한다(이한수, 1989; Shepperson, 1981). 대부분의 일반적이고 서술적인 영적 진리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관심과 통찰력 부족으로 마음과 기억에서 혼

적도 없이 망각된다. 하지만 Richard C. Trench(2005: 25-26)가 설명하듯, “예수는 생생한 이미지가 담긴 간단하고도 역설적임 문장이나 흥미 있는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생생한 이미지를 그려 주고 질문을 갖게 하며 들을 때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그들의 기억 속에 담겨져서 보존하게 만든다.”

또한 은유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듯,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저항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은유는 적절한 개입의 한 방법이 된다. 개입이 은유적이고 간접적으로 이뤄지게 될 때, 은유는 내면 성찰을 하는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내담자가 의식적인 인식을 넘어서서 내면의 무의식적인 수용이 용이해 지고 저항 역시 줄어든다(Haley, 1993). 이 내면은 단지 강한 욕구와 그로 인한 상처가 잠재된 정신분석학적인 의미의 무의식이 아니다(Haley, 1993: 34). 이것은 드러나서 살피지면 그 자체가 치료현장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과 같은 것이다. 무의식과 의식의 다리를 놓아서 그 실체를 좀처럼 내놓지 않지만 강한 영향을 가진 내면의 갈망이 어떻게 행동과 습관으로 고착화되었는지를 보게 한다. 또한 생각과 감정에 다리를 놓으면서 인지 영역에서의 변화가 감정과 삶으로 확산되도록 돕고 감정의 영역 속에서의 사고과정을 촉진시키며,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데 까지 도움을 준다. 특히 내담자의 정서는 그 사람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과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은유는 숨겨진 마음을 찾아내고 인식하고 풀어내는데 유용하다.

더 나아가 상담의 기재로서의 비유만이 아니고 어떤 비유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기독교상담이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야 하는 부분이 예수의 비유에 대한 현재적 적용이다. 이것은 예수의 비유를 그대로 사용한다기 보다는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은 살리면서 현대의 언어와 유사한 비유로

전용하려는 시도이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전한다.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누가 봐도 여유 있다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장사가 연속해서 잘 되어 이윤이 많이 남았고, 투자 역시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노후를 생각하며 이곳 저곳에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러면서 ‘편하게 살아보자, 먹고, 마시고, 인생 뭐있나,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거지’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가진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순서에 따라 나열해 본다면(Ortberg, 2008: 30-31), “투자와 장사의 이익, 더 많은 은행 잔고를 쌓는 것, 경제적인 안정에 이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죽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비석명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에 대한 또 다른 평가는 한 단어로 ‘어리석음’이었다.” 성경은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 난 너에게서 네 영혼을 가져갈 참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쌓아온 것은 이제 누구 것이 될 것이냐”라고 정리하고 있다.

예수는 탐심이라는 그림자의 욕구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것으로 인하여 후회하고 집착하고 무너지며 각양각색의 개인과 관계 상의 문제가 생기며,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다. 본질적으로 탐심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마 6:24)이 된다고 것도 통찰하기를 원한다. 어리석은 부자는 단지 행복한 은퇴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만 욕심을 부렸던 것이 아니다. 그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은 바로 재산을 늘리는 것으로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다는 점이다. 그는 가득 찬 창고를 교회로 삼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우리는 노골적으로 드러난 악이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에 대해서는 조심한다. 어떤 때는 단호하게 거부하며 분별하려고 한다. 그러나 유치하고 어두운 그림자 욕구는 자신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부인하며 빠져 들어가게 한다. 예수 비유는 그런 내면을 통찰하게 하고 무심한 듯 저항하

는 자신을 드러내게 하며 변화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또한 예수는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서 큰 잔치에 손님을 초대하는 비유를 언급한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에 올 수 없다고 말하며 이렇게 말한다. “내가 밥을 샀는데 가서 둘러보아야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 열 마리를 샀는데 밭에 있는 이것들을 보러 가야 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것을 지금 시대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막 집을 샀는데 아직 잘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지금 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 돈 좀 들여서 자동차를 새로 사기로 했는데 가서 좀 봐야 해요.”라고 하는 것이다. 이들이 잔치에 오길 거부하는 진짜 이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자기 삶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진정한 동기는 다른 것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이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유는 자신의 생각과 삶의 패턴을 조망하게 하는 도전으로 작용한다.

언급하였듯이 Knabb에 의해서 제안되는 예수의 삶과 성경 이야기에서 도출된 비유가 통찰과 내적 자동성을 드러내는 구체적 도구가 된다. 그는 같은 맥락의 목적을 추구하지만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ACT의 자기중심적 접근에서 기독교상담의 신앙중심적 접근으로 적용하여 비유를 인지행동치료의 개입의 대안이자 실제 연습하여 경험화하는 훈련에 까지 활용하도록 구조화하고 있다(Knabb, 2016: 110). ACT에서 말하는 수용, 언어적 탈융합에 대한 은유와 기독교적 비유 대안은 자기를 통찰하는데 도움을 주며 인지적 통찰과 관련된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습관의 변화와 관련해서 ACT는 자신이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탐탐치 않은 경험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며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치에 전념하는 삶의 변화를 제시한다. 이 부분 역시 성경의 비유를 대안으로 나눌 수 있다.

### 3) 삶의 비유

예수의 비유가 이전의 구약의 비유와 뚜렷하게 다른 것은 구체적인 역사적 삶의 정황과 관련될 뿐 아니라 예수의 인격과 사역이 위치한다는 점이다(이한수, 23). 비유는 예수의 자기 계시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녹여낸 언어적 표현으로 만이 아니고 비유 행동을 담은 예수의 인격을 통해 전달되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소식이었다(Jeremias, 1974: 221).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용서를 하신다는 진리가 사람들이 미워하는 세리 삭개오와 식사를 같이 하고(눅 19:5-6), 죄인을 받아들여(눅 15:1-2) 제자로까지 삼으면서(마 10: 막 2:14) 전달된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 병 고침, 금식하지 않는 것(막 2:19-20),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이미 착공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성전의 반석을 삼으신 것(마 16:18)으로 입증된다. 섬김을 일깨우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고(요 13:1), 회개를 호소하기 위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면서 사람들의 배신을 드러낸다(요 8:6, 8; 렘 17:13).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공명심에 물든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막 9:36). 나귀새끼에 타심으로 겸손한 왕의 입성을 나타냈다(막 11:7; 눅 9:9).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비유로 전할 뿐 아니라 자신이 그 소식이 되는 비유를 담은 삶으로 말씀 그 자체인 케리그마를 전했다.

기독교상담 역시 이러한 예수의 비유를 담은 삶을 구현해 내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다시 말해 상담자의 내담자를 향한 태도와 마음에서 비유행위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생활이 비유를 전달하는 자의 능력과 지혜를 뒷받침한다. 더불어 믿음에 근거한 비유 행위와 삶이 있어야 전달하고자 하는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고 회복을 가져오는 나눔을 가능하게 한다. 정훈택(2009: 25)은 예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사람들이 가진 예수를 향한 믿음이라고 강조한다. 예수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마 13:12)고 말씀한다. 기독교 상담자가 예수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서 예수의 비유를 인용하고 새로 만들어 내면서도 그 비밀을 깊게 깨닫는 가운데 삶의 변화에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에 예수를 향한 마음과 확신하는 진리를 품고 있을 때 상담자가 먼저 비유들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경험하고 내담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며 비유를 드러내는 태도와 삶으로 상담의 과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Ⅲ. 닫는 글

기독교상담은 다양한 내담자의 문제와 주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성숙해 가는 것을 최종적이고 거시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놓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대한 안내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교회를 통해 검증되어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눔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 대부분이 이에 대한 동의를 하고 필요성도 느끼지만, 아쉽게도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전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답을 찾기가 힘들다. 또 다시 권면 중심의 직면적 대화에 대한 한계가 제기되기도 하고, 주의 깊고 적절하게 나누기는 했지만 가시적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상담결과에 위축되기도 한다.

이에 논문은 지혜자 예수의 방법에 집중하고 그 분이 대상과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한 언어적 전달 도구인 비유를 살펴보았다. 예수의 비유는 당시만이 아니고 오늘날까지도 소통을 위한 적절한 도구였을 뿐 아니라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통로였음을 확인한다. 더불어 이러한 비유에 대한 현대의 이해를 은유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예수 비유

의 역동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현장과 사실로부터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다. 은유는 수사학적 도구만이 아니고, 인지적 통찰과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며 심리적으로 볼 때도 내면을 조망하여 성찰 그 이상의 분별을 갖게 하는 자원이 된다.

비유가 가진 위로부터의 지혜와 인간의 삶에서의 사실을 통합하며 기독교상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구분하였다. 예수의 비유를 직접 또는 편집하여 인용해서 거기에 담긴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포함해서 새롭고 의미 있는 은유를 나누는 것은 무엇보다 인지적 통찰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다. 또한 비유는 내면과 외면을 이어주고 감정과 인지를 연결하며 내면의 갈망에서 초래하는 왜곡된 습관을 발견하고 변화로 나아가도록 돕는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예수의 비유가 말이 아닌 그 분의 인격과 삶으로 전달되었듯이, 기독교 상담자는 비유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상담의 만남에서 비유를 담은 태도와 삶이 동력이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았다.

이 논문은 예수 비유가 상담적으로 적용가능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찾는데 초점을 모았고, 이에 반해 기독교상담 현장에서 예수의 비유를 활용한 실제 사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예수의 비유에 대한 현대적 이해와 현장과의 접목이 이뤄지기 바라고, 이를 통해 기독교상담이 진행되는 현장 마다 내담자의 회복에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비유라는 언어적 통로를 통해 풍성하고 영향력 있게 나뉘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참고문헌 】

- 김옥동 (1998). *은유와 환유*. 서울: 민음사.
- 김종도 (2002). *인지문법의 디딤돌*. 서울: 박이정.
- 명법 (2016). *은유와 마음*. 서울: 불광출판사.
- 배선윤, 박찬부 (2011). 은유치료: 문학치료에 대한 은유적 접근. *대한문학치료 연구*, 2(1), 85-100.
- 송재홍 (2014). 상담자 훈련과 슈퍼비전에서 은유의 의미와 활용. *초등상담연구*, 13(4), 451-473.
- 양유성 (2003). 상담에서 나타나는 은유의 이해와 사용. *교수논문집*, 7, 257-279.
- 양유성 (2013). *이야기치료*. 서울: 학지사.
- 양유성, 김동영, 홍순원 (2014). 목회상담에서 은유의 의미와 기능.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119-138.
- 이선형 (2012). 예술치료를 위한 은유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소고. *드라마연구*, 37, 145-166.
- 이윤주, 양정국 (2007). *은유와 최면*. 서울: 학지사.
- 이재화, 전요섭 (2011). 기독교상담을 위한 은유활용의 중요성 고찰. *복음과 실천신학*, 24, 163-188.
- 이재화, 전요섭 (2012). 이야기상담의 이해와 기독교상담 방안. *복음과 상담*, 18, 264-294.
- 이종열 (2003). *비유와 인지*. 서울: 한국문화사.
- 이한수 (1989). *비유와 해석학*.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 정훈택 (2009).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 서울: 대장간.
- 최서영 (2016). 은유스토리텔링을 통한 자기치유경험 연구.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noist, L. (2006). 기호, 상징, 신화(박지구 역, *Signes, Symboles et Mythes*). 경북: 경북대학교 출판부. (원전 1998 출판).
- Boghosian, J. (1983). The Biblical Basis for Strategic Approaches in Pastoral Counsel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2), 99-107.
- Borg, M. J. (1995). *Meeting the Jesus for the First Time*. New York: HarperOne.
- Crawford, L. E. (2009). Conceptual Metaphors of Affect. *Emotion Review*, 1,

129-139.

- Crossan, J. D. (1973). *In Parables: The Challenge of the Historical Jesus*. New York: Harper & Row.
- Dittes, J. E. (1970). *The Minister on the Spot*. New York: Pilgrim Press.
- Erickson, M., & Rosen, S. (2015). 밀턴 에릭슨의 심리치료 수업(문희경 역, *My Voice will Go with You*). 서울: 어크로스. (원전 2010 출판).
- Fainsilber, L., & Ortony, A. (1987). Metaphorical Uses of Language in the Expression of Emotions.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2, 239-250.
- Funk, R. W. (1966). *Language, Hermeneutic and Word of God*. New York: Harper & Row.
- Hall, C. S., & Nordby, V. J. (2004). 융심리학 입문(김형섭 역,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서울: 문예출판사. (원전 1999 출판).
- Haley, J. (1993). *Uncommon Therapy: The Psychiatric Techniques of Milton H. Erickson*. New York: Norton.
- Hayes, S. C., Strosahl, K. D., & Wilson, & K. G. (1990).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 Experiential Approach to Behavior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ill, Clara E., & O'Brian, K. M. (2001) 상담의 기술(주은선 역, *Helping Skills*). 서울: 학지사. (원전 1999 출판).
- Gelo, O. C. G., & Mergenthaler, E. (2012). Unconventional Metaphors and Emotional- Cognitive Regulation in a Metacognitive Interpersonal 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22, 159-175.
- Gordon, D. (1985). The Role of Presuppositions in Ericksonian Psychotherapy. In Jeffrey K. Zeig (Ed.), *Ericksonian Psychotherapy: Structures*, volume I(pp.62-76). New York: Brunner/Mazel.
- Jeremias, J. (1974). 예수의 비유(허혁 역, *Die Gleichnisse Jesu*). 서울: 분도출판사. (원전 1970 출판).
- Kissinger, W. S. (1987). 예수의 비유(한익신 역, *The Parables of Jesus*). 서울: 종로서적. (원전 1979 출판).
- Knabb, J. J. (2016). *Faith-Based ACT for Christian Clients*. New York: Routledge.

- Kopp, R. R. (1995). *Metaphor Therapy: Using Client Generated Metaphors in Psychotherapy*. New York: Routledge.
- Kopp, R. R., & Craw, M. J. (1998). Metaphoric Language, Metaphoric Cognition, and Cognitive Therapy.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5, 306–311.
- L'Abate, L. H. D., & McMahan, O. (2007). An Overview of Paradoxical Counseling and its Congruence with Biblical Writings.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61(3), 231–242.
- Lakoff, G., & Johnson, M. (2006). *삶으로서의 은유(노양진, 나익주 역, Metaphors We Live by)*. 서울: 박이정. (원전 2003 출판).
- Melchert, C. F. (2002). 지혜를 위한 교육(송남순, 김도일 역, *Wise Teaching: Biblical Wisdom and Educational Ministry*).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전 1998 출판).
- Millikin, J. W., & Johnson, S. M. (2000). Telling Tales: Disquisitions in Emotionally Focused Therapy. *Journal of Family Psychotherapy*, 11, 73–79.
- Mitford, M. B., & Wilkinson, P. (2010). 기호와 상징: 그 기원과 의미를 찾아서(주민아 역, *Signs and Symbols*). 서울: 21세기 북스. (원전 2008 출판).
- Ortberg, J. (2008). 인생게임(김석원 역, *When the Game is Over*). 서울: 사랑플러스. (원전 2008 출판).
- Patterson, S. J. (1998). *The God of Jesus: The Historical Jesus and the Search for Meaning*.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 Reinstorf, D., & van Aarde, A. (2002). Reflections on Jesus' Parables as Metaphorical Stories Past and Present. *Hervormde Theologies Studies*, 58(2), 721–745.
- Satir, V., Gomori, M., Gerber, J., & Banmen, J. (1991).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Palo Alto, CA.: Science & Behavior Books.
- Shepperson, Vance L.(1981). Paradox, Parables, and Change: One Approach to Christian Hypnotherap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9(1), 3–11.
- Sims, P. A. (2003). Working with Metaphor.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57, 528–536.

- Smith, J. K. A. (2018). *습관이 영성이다*(박세혁 역, *You are What You Love*). 경기도: 비아토르. (원전 2016 출판).
- Steen, G. J., Dorst, A. G., Herrmann, J. B., Kaal, A. A., & Krennmayr, T. (2010). Metaphor in Usage. *Cognitive Linguistics*, 21(4), 765–796.
- Stewart, I., & Barnes–Holmes, D. (2001). *Understanding Metaphor: A Relational Frame Perspective. The Behavior Analyst*, 24, 191–199.
- Stoddard, J. A., & Afari, N. (2016). *수용전념치료(ACT) 은유(메타포) 모음집* (손정락 역, *The Big Book of ACT Metaphors*).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9 출판).
- Tay, D. (2012). Applying the Notion of Metaphor Types to Enhance Counseling Protocol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0, 142–149.
- Trench, R. C. (2005). *Notes on the Parables of Our Lord*. 12<sup>th</sup> Ed. New York: D. Appleton & Company.
- Wagener, A. E. (2017). Metaphor in Professional Counseling. *The Professional Counselor*, 7(2), 144–154.
- Zeig, J. K., & Munion, W. M. (1999). *Milton H. Erickson*. Thousand Oaks, CA.: Sage.

【 Abstract 】

A Study on The Parables of Jesus  
as a Method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Ahn, Kyung Seung**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proposes a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 verbal intervention tool that could be utilized in Christian counseling. As one of the suggestions, the paper argues that the parables of Jesus can be a necessary resource. It takes a look the characteristics of parables and their interpretation related to Christian counseling. It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metaphoric aspect of the parables, looking at the recent studies on metaphor and its use in counseling. Metaphor is no longer seen merely as a rhetorical technique; it influences human beings' lives as it encompasses their thoughts and experience, which shows counseling intervention through metaphor. Next, this paper draws three elements revealed by research on the parables of Jesus and metaphor, and proposes how they relate to Christian counseling. First, it emphasizes that figure brings about cognitive insight. Both the parables of Jesus and metaphor help with cognitive change and reorganization. Figure can give insight to the counselee through God's perspective and will. Second, figure is useful in breaking habits that have been shaped through desires which contains the roots of sin. Figure approaches to counselee profoundly with deeper understanding. Third, just as the parables of Jesus were demonstrated through Jesus's personality and life, a Christian counselor should have foundation on God's faith and attitude to make and deliver the figure.

**Key words:** Jesus, parables, metaphor, cognitive insight, Christian counseling